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11월 18일(주일) 제1221호



사진은 지난해 엔젤트리.

행복을 보내고, 희망을 받는다!

11월 25일부터 2018엔젤트리 시작 사연 2,990개 접수, 6주 동안 게시

“새 아빠에게 사위 용품을 선물하고 싶어요.”, “어르신들을 살갑게 보살피는 강화도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에게 운동화를 선물해 주세요.”, “아동학대를 피해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학생에게 따뜻한 겨울 점퍼가 필요해요.”, “쪽방촌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하는 재미로 사는 어르신에게 속옷과 신발을 보내주세요.”

2018 엔젤트리에 접수된 사연들이다. 2,990(11월 16일 기준)건의 사연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성도들은 이웃들에게 행복을 보내고, 이웃들은 성도들에게 희망을 선

물 받는다.

엔젤트리 사연은 11월 25일부터 6주 동안 국내 10개 캠퍼스 로비와 목회지원실에 게시된다. 엔젤트리에 동참하고 싶은 성도들은 사연게시판에 게재된 사연을 뽑아 후원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엔젤함에 넣고, 천사카드를 엔젤트리에 걸어두면 된다. 이후 사회선교부에서 문자메시지로 사연 주인공의 주소를 보내주면 3~5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면 된다. 선물을 보내고 나서 엔젤폰(010-7616-2434)에 “00사연 선물 발송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완료된다. 주소를 알리고 싶지 않으면

사회선교본부 주소(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52 3층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를 적으면 된다.

아직 사연을 접수하지 못 한 성도들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로비에 설치되는 사회선교 데스크나 전화(02-3215-3434)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엔젤트리는 2015년부터 시작됐다. 2016년과 2017년 엔젤트리는 후원율 100%를 달성했다.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는 “엔젤트리는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작업”이라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에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문의: 02-3215-3434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공동체 하반기 종강예배

온누리공동체가 2018년 하반기 종강예배를 드리며 방학에 들어간다. 하반기 공동체 종강예배는 11월 22일 마포공동체를 시작으로 12월 8일 고양은평, 강남C공동체까지 이어진다(아래 표 참조).

올해 하반기 온누리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9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이웃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다. 10월 열린 부흥축제 ‘바른성공’에서는 크리스천으로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11월 13~14일에는 러브소나타 후쿠오카가 막 올랐다.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서빙고			
날 짜	공동체	장소	시간
11월 22일	마포	한동홀	18:00
11월 23일	강서	두란노홀	18:00
11월 23일	관악금천	한동홀	18:00
11월 23일	서빙고	시온홀	18:00
11월 23일	한강	비전홀	18:00
11월 25일	김포	온누리기독교문화전시관	13:00
11월 26일	중종로	두란노홀	18:00
11월 27일	S브릿지	시온홀	18:00
11월 27일	여의도	한동홀	18:00
11월 27일	영등포구로	두란노홀	18:00
11월 27일	이수	비전홀	18:00
11월 29일	가정사역	두란노홀	18:00
11월 29일	노원	상현교회	19:00
11월 29일	양천	비전홀	18:00
11월 29일	용산	한동홀	18:00
11월 30일	강촌	한동홀	18:00
11월 30일	동작	두란노홀	18:00
11월 30일	찬양사역	비전홀	18:00
12월 1일	광명	하안장로교회	14:00
12월 1일	이촌	한동홀	18:00
12월 2일	북누리	북누리비전센터	17:00
12월 2일	성북	온누리기독교문화전시관	13:00
12월 2일	일산	일산비전센터	16:00
12월 2일	특초	순영홀	17:00
12월 4일	OCC	한동홀	18:00
12월 4일	동대문중앙	비전홀	18:00
12월 4일	서대문	두란노홀	18:00
12월 4일	성동광진	시온홀	18:00
12월 7일	신용산	두란노홀	18:00
12월 8일	고양은평	진관교회	17:30

양재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11월 25일	푸른누리	화평홀	16:00
11월 27일	CMN	드림홀	19:00
11월 27일	분당A	온유홀	19:00
11월 29일	서초A	온유홀	19:00
11월 29일	서초B	화평홀	19:00
11월 29일	서초C	드림홀	18:00
11월 30일	강남D	도곡 기쁨홀	19:30
11월 30일	분당B	온유홀	19:00
11월 30일	서초D	드림홀	19:00
11월 30일	양재	화평홀	19:00
12월 2일	하모니	비전홀B	15:20
12월 4일	강남B	화평홀	19:00
12월 5일	강남A	화평홀	19:00
12월 6일	경기A	화평홀	19:00
12월 7일	POINT5	온유홀	20:00
12월 7일	도곡	화평홀	18:30
12월 7일	송파	드림홀	19:00
12월 8일	강남C	기쁨홀	17:00

캠퍼스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11월 23일	부천 믿음	외부정소	20:10
11월 30일	부천 희망	외부정소	20:00
11월 30일	부천 사랑	분당	19:00
12월 1일	부천 소망	비전홀	19:00
12월 1일	부천 화평	남한산성 목장의집	10:00
11월 30일	대전 서누리	누리홀	17:00
11월 30일	대전 남누리	예술리 서대전점	19:00
11월 30일	대전 동누리	미정	미정
11월 30일	대전 북누리	미정	미정
12월 7일	남양주 연합	수동 총신교회	20:00
12월 2일	평택 연합	분당	16:00
12월 7일	인천 연합	제너슨 7, 8층	19:30
11월 30일	강동 연합	분당	20:00
11월 30일	양지 동누리	지하 1층 박모세홀	20:00
11월 30일	양지 서누리	지하 1층 길보르홀	20:00

온누리 절약 캠페인 1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절약 캠페인을 실시한다. 그 첫 번째는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이다.

온누리교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너무 많다.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기준으로 지난해 발생한 폐기물

이 170톤, 음식물 쓰레기는 90톤이나 된다.

폐기물 쓰레기 대부분은 일회용품이다. 처리 비용도 많이 들고,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종이컵, 플라스틱 수저,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대

쓰레기를 줄이자

신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자. 개인이 집에서 가져온 수저와 젓가락을 이용하자.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는 먹을 만큼만 받고 남기지 말자.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코리안 탱크, 대한민국 최고의 남성 골퍼, 한국 남자 골프의 상징... 이 모든 수식어가 골프선수 최경주 선수를 일컫는다. 이 밖에도 최경주 선수를 수식하는 단어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최초'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린다. 최경주 선수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자신의 이름을 딴 대회(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가 열리고 있다. 또한 그는 한국인 최초 PGA(미국프로골프) 투어 우승자이기도 하다. '기부천사'라는 타이틀도 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최경주재단)을 설립해서 골프꿈나무와 장학꿈나무를 지원하고, 각종 자선행사를 열어 기부문화를 널리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어떤 상황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코리안 탱크 '최경주 선수' 신앙도, 기부도 으뜸



코리아 탱크 최경주 선수의 원동력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이다.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던 최경주 선수가 지난 6월 PGA에 병가를 냈다. 프로골프 선수로 데뷔하고 25년(한국 5년, 미국 20년) 동안 쉼 없이 활동했는데 그동안 피로가 너무 많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온전히 휴식만 취해도 모자랄 텐데 최경주 선수는 쉬는 시간조차 바쁘다. 한국에서 채 한 달도 안 되는 일정을 보내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스케줄을 소화했다. 코리안 투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대회 출전, 자선골프대회 및 후원의 밤 행사 등을 개최했다. 그의 별명인 탱크처럼 거침없고 쉼 없는 행보의 연속이었다. 최근 최경주 선수를 본 많은 사람들이 그를 걱정했다. 몰라볼 정도로 살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이다.

“휴식 기간 동안 금식하면서 체중조절을 했어요. 몸무게가 92kg였는데 13kg를 감량했어요.”

건강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진단도 받았는데 이상소견이 발견됐다. 갑상선암이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어요. 선수생활을 하려면 제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호르몬 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웃음).”

최경주 선수는 정말 긍정적이면서 에너지가 넘쳤다. 그 호탕함과 호방함의 비결은 신앙이었다. 최경주 선수는 처음부터 크리스천은 아

니었다. 1993년 아내의 전도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됐다. 그 교회가 바로 온누리교회다.

“아내와 데이트하면서 난생처음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안 가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웃음). 그때는 ‘그래! 내가 교회 가 준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조금씩 마음이 변했고, 1999년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어요. 온누리교회가 큰일을 참 많이 하지요?(웃음)”

세례 받고 PGA에서 활동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한국에서 승승장구하던 그였지만 미국 생활은 만만하지 않았다. 관록할 만한 성적을 내지 못해 쿼스쿨(투어 출전 자격을 얻는 자격검증 시험)에 또 다시 나가는 부침을 겪어야 했다. 절치부심 끝에 2002년 PGA 투어 컴팩 클래식에서 우승했다. 당당하게 미국 무대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그 우승은 최경주 선수를 한국인 최초 PGA투어 우승자로 만들었다. 대한민국 골프 역사에 획을 긋는 엄청난 일이었다.

그 이후 행보도 거침없었다. 각종 대회 상위권에 랭크됐고, 우승도 했다. 그가 미국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힘이였다. 최경주 선수는 대회기간에도 기도하고 말씀묵상 빼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타이거 우즈 선수가 개최한 ‘AT&T 인터내셔널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대회 원년 우승자입니다. 그 대회에 출전할 때 아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

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요 15:16)는 말씀을 외우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회가 시작되자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머릿속으로 그 말씀을 되새기려고 애쓰면서 경기를 치렀는데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정말 엄청난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최경주와 최경주재단

미국에서 선수생활하면서 기부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미국 선수들이 정말 멋지게 살더라고요. 기부도 잘 하고, 세금도 잘 내고, 자기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지역사회를 보듬는 걸 보고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최경주 재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받은 게 너무 많은데 그것을 후배들에게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최경주재단은 2008년 공식 설립됐다. 올해 꼬박 10년 되었다. 그동안 최경주재단이 지원한 학생이 400명이 넘는다.

“현재 골프꿈나무(재능 있는 골프선수 육성 및 후원) 20명, 장학꿈나무(대학 진학비 및 학습비 지원) 30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경주재단이 후원한 친구가 400명이 넘습니

다. 이 지면을 빌려 10년 동안 최경주재단과 함께 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경주재단을 10년 동안 해올 수 있었습니다.”

최경주재단의 후원이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굵직한 대회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낸 차세대들이 나오고 있다. 장학꿈나무들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올해 AJGA(미국주니어골프협회)대회에서 1기 졸업생 박상하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인주연 선수는 5월 열린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에서 우승했고요. 가수 곽진언이 장학꿈나무 후원을 받은 적이 있고요. 골프꿈나무들이 잘 자라서 프로대회에서 우승하고, 장학꿈나무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진출하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경주 선수의 기부와 자선활동은 돈만 투척하고 마는 행위가 아니다. 그는 꿈나무들과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을 기획해서 직접 체험한다. 골프꿈나무들과는 1년 두 번 전지훈련을 가서 노하우를 직접 가르쳐준다. 기회가 될 때마다 최경주재단이 후원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려고 노력한다.

“최경주재단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않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여러 후원자들이 있어서 언제나 든든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경주재단을 끝까지 운영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최경주 선수는 오늘도 도전한다. 앞으로 계획도 많다. 그래서 매일 바쁘다.

“골프선수로서는 ‘챔피언스 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 선수들이 참가하는 PGA 투어입니다. 제가 참가하게 되면 한국 선수로서는 최초입니다. 의미가 큰 대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잘 하고 싶습니다. 또 저는 CGNTV를 끝까지 섬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재단 설립을 방해하는 규제들이 많이 풀려서 우리 사회에 기부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탕하고 호방한 최경주 선수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감사와 후회가 있었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기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깨어서 기도하라

에베소서 6:10~20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어떤 육신의 방해에도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십시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명에 절대적인 공기는 몸 안에 들어 오기를 원하고, 우리 몸은 공기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숨을 쉬는 것보다 쉬지 않는 것이 어려운 것은 몸에 산소와 공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숨 쉬지 않는 것이 치명적인 것처럼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삶,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영적전쟁에서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영적호흡을 대신해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연명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은 곧 기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생생하고, 진실하고, 친밀하고, 능력 있느냐가 우리의 영적생활을 결정짓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결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강한 의지나 행동, 뜨거운 감정이나 기도의 정교한 논리가 기도응답을 받는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죄, 그분의 중보, 그분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사역에 근거할 때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매듭짓는 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참된 기도와 능력 그리고 축복

노르웨이의 오 할레스비라는 목사님이 기도에 관한 많은 책을 쓰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들이는 일이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 그것이 기도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

들의 삶과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높은 권위, 위치, 가장 사랑스런 대상으로 온전히 살아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불지여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기도란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초청과 임재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사시는 것이 참된 기도이자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살아계시지 않다면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야 하는 이유는 참된 기도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전쟁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기도해 힘써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있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까? 아니면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무겁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참 기쁨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의무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없고, 기도하지 못할 주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큰 새는 큰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날개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날개 때문에 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거운 의무처럼 느끼지 않고, 우리 영혼에 날개를 달아주시는 축복이라고 여길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사탄의 방해와 영혼의 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엡 6:18).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말씀에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막 14:37-38).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셨습니다. 그토록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몇 차례나 방문하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제자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피곤하면 자는 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피곤해서 자는 잠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순간에, 깨어 기도해야 할 순간에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활동이 있음과 동시에 육체의 잠 이전에 영혼의 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은 낙망에 빠질 때 취하는 것이 잠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깊은 상처와 아픔, 절망 속에 있을 때 잠을 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잠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약한 육신을 이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대적 위기에서 비장한 각오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찾아온 잠은 육체적 잠을 넘어서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모임이나 교회에 설교하러 가면 집단적으로 자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주무시고 계십니다. 피곤해서 설교시간에 조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잠시 눈을 붙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영혼이 잠들어서 의도적으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적 ‘순진, 나태, 거만’

“시몬아, 자고 있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막 14:37b-38).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힘주어 한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와 죽을지언정 결코 나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죽을지언정’이라고 힘주어 말한 사람이 사투를 벌이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동산에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외로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던 중에 여러 번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까? 제자들도 깨어 기도해야 다가올 시험에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존 번연이 쓴 <천로역정>에 보면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크리스천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짐을 풀고 전진할 때 잠들어있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사람은 순진, 또 한사람은 나태, 세 번째 사람은 거만입니다. 영혼을 잠들게 하는 세 가지 적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적입니다.

순진이라는 것은 전혀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태는 잠에서 깨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거만은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순진과 나태와 거만이 제자들의 영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곁에서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영이 육에게 쳐서 잠든 것입니다. 제자들이 잠들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 것이지만 정반대 의미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에 잠을 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영혼은 닥쳐올 위기와 시험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경고가 주어져도 무시합니다. 원하는 것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습니다. 자신은 이미 도달했다고 자만합니다. 나태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이라는 단어는 보이는 신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부패한 성질을 말합니다. **<13면에 계속>**

전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타인과 접촉하지 않으려는 현상(언택트, untact) 가속화 시대 변화 거스를 순 없다 ... 더 효과적인 전도방법 개발해야

세상이 변했다. 사람들도 달라졌다. 이제는 하루 종일 타인과 말 한마디 섞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시대가 됐다. 식당에서 종업원과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문할 수 있고, 옷가게에서도 직원의 도움 없이 옷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지면 심해졌지 과거로 회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옳고 그름을 논하자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달라진 세상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대의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 특히 관계 맺기가 핵심인 전도 패러다임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결을 물어 보면 빠먹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관계형성’이다. 전도대상자와 관계를 얼마나 잘 맺느냐가 전도의 성패를 결정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도방식이 앞으로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 시대 사람들이 타인과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 맺는 일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려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현상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결정적이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속담이 있다. 사람이 관계 맺고 살아야 하는 이유와 그 유익을 잘 나타내 주는 말이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속담을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고 표현한다. 희로애락을 공유했던 그 좋은 공동체가 이제는 스트레스의 산실로 느껴지는 경우도 많다.

언택트(untact)기술을 아시나요?

이 시대 사람들은 타인과 관계 맺는 것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대변하는 용어가 바로 ‘언택트(untact)기술’이다. 언택트 기술은 접촉(contact)을 뜻하는 콘택트에 부정적 의미를 띠는 언(un)이 합쳐져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비대면 형태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마케팅을 의미하기도 하고, 무인서비스를 활용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기술의 총칭을 뜻하기도 한다. 언택트 기술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들의 욕구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언택트 기술은 이미 우리 삶 속 깊은 곳까지 들어와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길을 걷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으면 가까운 곳에 있는 커피숍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하면 된다. 어플리케이션 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를 이용한 주문이 이미 5천만 건을 돌파했다. 어디 이뿐인가. 휴대폰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터치 몇 번만 하면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배달된다. 생활용품도 배달된다. 올 여름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주문이 약 2천만 건이나 됐다.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이용자가 주로 구매하는 물품과 비슷한 상품들이 자동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체 주문량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천 메뉴 주문이 39%나 된다. 국내 대형유통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 젊은이들의 관심사를 공략해서 전도해야 한다.

마트에도 셀프 계산대가 들어서고 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고도 해결 가능한 일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와 같은 언택트 기술은 앞으로 더 많은 영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불쾌함 주는 교회 홍보는 이제 그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맥 쌓는데 혈안이던 젊은이들 사이에서 ‘혼족 신드롬’이 불고 있다. ‘관계 기피’ 현상이 신조어를 만들어 낸 것이다. 혼행(혼자 떠나는 여행), 혼밥(혼자 먹는 식사), 혼영(혼자 보는 영화) 등 혼자서 일상을 보내는 혼족 신드롬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이 싫어서 만들어졌고 각광받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교회도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무턱대고 교회를 홍보하는 전도를 불편해 한다. 직장인 강동진 씨는 “무턱대고 붙잡고 자기 교회를 홍보하는 말을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쁘다”고 했다. 최석길 씨는 “거절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 아예 그런 말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몇몇 사건사

고의 여파로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가면서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인터넷에서 전도를 물리친 일화가 영웅담처럼 퍼져나간 적도 있다. 한 네티즌이 훈련소 시절 위문을 온 모 교회 성도들과 연쟁을 벌인 일화를 인터넷 커뮤니티 올렸다. 교회에서 햄버거를 나눠준다고 해서 갔더니 한 성도가 예수 믿고 기도하라고 해서 싸웠다는 내용이었다. 교회 앞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성도들과 말다툼을 벌인 일화는 셀 수 없이 많다.

한국대학생선교회 학원사역연구소에서 청년들에게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를 물었더니 부모님 따라서가 77%로 가장 많았고, 친구의 전도 16%, 선배나 후배의 전도 28%, 개인적 어려움 23%, 기타 7.3% 순이었다. 길거리 교회 홍보로 전도한 청년들의 비율은 너무 낮아서 유의미한 통계로 잡히지도 않았다. 면대면 문화를 기피하는 시대에 발맞춰 전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전도대상자의 필요 채워주고, 복음도 전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

전도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전도대상자들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서 전도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도방법을 찾아야 한다.

먼저 전도대상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전도하는 방법이다. 관계를 기피하는 사회가 정말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20~4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모임 문화가 유행하고 있다. 주로 취미와 기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모임인데 책, 음식, 운동, 강연, 소공예 등 그 주제도 다양하다. 이 모임들은 주로 유료회원제로 운영된다. 몇 만원부터 몇 십만 원까지 회비를 내야 한다.

요즘 20~4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이고 취미생활이나 자기계발에 집중하는 문화가 대세다. 포털사이트 잡코리아가 20~40대 직장인들에게 “새로운 취미생활을 가질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응답자 89.2%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소규모 모임이 활성화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아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김홍업 씨는 “여럿이 운동하면 재미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농구모임에 가입했다”면서도 “농구모임에서 있는 동안 즐거울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대중문화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느슨한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작은 모임 문화를 교회에서 해보면 어떨까? 이미 교회에서도 북클럽, 운동모임, 사진촬영 등 크고 작은 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비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더 크게 열면 어떨까? 전도대상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전도도 하는 일석이조가 될 것이다. 모임에 가입하자마자 전도에 열을 올리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 맺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취미생활 하러 교회 왔다가 예수 믿고 가는 사람들을 늘려야 한다.

짧은 광고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복음을 광고하고 있는 ‘복음의 전함’처럼 지하철이나 사거리 등에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광고를 게시하는 전도 방법이다. CGNTV에서 제공하는 1~3분 이내의 짧은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좋다. 가장 좋은 광고는 성도 스스로가 예수님의 입간판이 되는 것이다.

전문가 기고

오늘도 누군가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전도여왕의 전도
레시피〉 저자)

1970~80년대 한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수많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 전도자가 되었다. 그때는 길에서나 가정을 방문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모두들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그런데 요즘은 문을 열

어주는 커녕 입구에서부터 차단된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을 뿐 아니라 만나도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아서 대화하기가 어렵다. 지하철을 타면 대부분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에 함몰되어 있다.

이 시대는 옳고 그름의 표준이 없고 주관적 감성을 중시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재미있다고 느끼는 대로 취향대로 살아, 서로 간섭하지 말자”고 생각한다. 복잡하고 지루하고 골치 아픈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전형적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산물이다. 요즘 유행하는 율로(YOLO; You Only Live Once)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소확행)을 추구하자.”

요즘에는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남의 인생에 끼어드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남의 눈치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고, 책임도 내가 질 것이니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각자 취향대로 살자”고 한다. TV에서는 혼자 밥 먹는 것이 유행하더니 혼자 여행가고, 혼자 놀기가 보편화되고 있다. 오죽하면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그램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겉으로는 즐기면서 자유롭게 잘 사는 것 같아도 상대적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이 과거보다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들에게 영적 갈망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은 “자신을 살려 달라”는 역반응일 수도 있다. 대학가 앞이나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 어디를 가도 타로, 사주 카페 등이 즐비하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대용품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공허한 눈빛과 감춰진 울음소리, 깨지고 상한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오늘도 누군가는 구원을 기다린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도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관계 맺기와 뜬뜬하기

전도 이전에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대 사람들은 혼자 멋지게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인정과 존중을 받고 싶어 한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관계의 힘을 무시하지 못한다.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땅부터 기경한다. 전도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면 먼저 그들의 생각과 마음밭을 기경해야 한다. 전도는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 인생을 살면서 굳어져 버린 가치관과 신념을 무조건 해체시키려 하면 더욱 방어적이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전도대상자를 코너로 몰아 넣고 따발총 쏘듯 일방적인 복음을 제시한다면 전도대상자들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을 알고, 전도대상자들의 관심사와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을 만큼 너는 나에게 특별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관심을 가지면 관찰하게 되고, 잘 관찰하면 그들의 관심사와 필요가 보인다.

뜸도 들어야 한다. 밥이 다 되었어도 금세 솥뚜껑을 열지 않고 뜬을 들였다가 열어야 맛있는 것처럼 전도도 뜬 들이기가 필요하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친해져야 마음이 열린다. 친해지려면 같이 밥부터 먹어야 한다. “내가 밥 살게”라는 말이 전도의 출발점이다. 소통은 밥통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밥을 먹으면서 공통 관심사를 나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나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부모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나도 기도하겠다”고 여운을 남긴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해준다고 하면 대부분 좋아한다. 기회 있을 때마다 다과를 함께하면서 자녀의 근황을 물어보고, 기도하고 있다고 표현한

다. 그러다 교회에 특별한 행사나 맞춤형 전도집회가 있을 때 초청하면 거절하는 사람이 드물다. 뜬을 들였기 때문이다.

타이밍과 접촉점 그리고 재료

타이밍도 중요하다. 빛이나 바람은 바늘구멍만한 틈만 생겨도 뚫고 나간다. 전도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나의 경우는 시어머니, 시숙님이 병상에 계실 때가 타이밍이었다. 수술을 앞둔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 수술을 앞둔 한 어르신은 내게 “다 운명에 맡겨야지요”하면서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그렇습니다.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가세요. 늙으면 인생사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최근 한 교우가 남편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저녁에 임종예배를 드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과 함께 가기로 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전부터 있어서 먼저 달려갔다. 교우의 남편분이 옆에 시커먼 물체가 보인다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 가족들이 보혈 찬송을 부르는 중이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며 잠깐 기도했는데 얼마 전 이재훈 목사님의 ‘믿음의 방패’라는 설교 말씀이 떠올라 선포했다.

“사단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라며 두려움의 불화살을 쏘려할 때 믿음의 방패로 막으세요.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하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

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전 15:56~57).”

환우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얼굴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보였다. 나는 주님의 손을 꼭 잡으라고 당부했다. 그 환우는 가족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며 밝은 미소를 보였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소천 하셨다.

전도는 접촉점이 있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연결이 관건인데 전도도 상황과 복음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즉, 접촉점이 중요하다. 접촉점을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비슷한 환경과 상황을 주신다. 접촉점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면 전도대상자의 거부감이나 부담이 줄어든다. 요즘 다음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학업에 대한 압박감, 취업, 결혼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좌절과 절망으로 생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 복음이 가장 절실한 세대인데 복음에 가장 관심이 없는 세대가 기도 하다.

얼마 전 천안으로 가는 열차에서 옆에 앉은 청년에게 먹을 것을 건네며 말을 걸었다. 자기는 종교가 없고, 대학교를 다니다가 공익요원으로 근무 중이라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서 답답하다고 했다. 나는 그의 말에 공감하면서 불투명한 미래라는 접촉점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다.

“아이작 뉴턴이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어요.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보면 답답하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보면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 어령 박사는 ‘3관개의 눈을 가진 잠자리도 밖으로 나가는 결정적인 눈 하나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셨고요.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것, 결정적인 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잠깐 소개하고 싶어요.”

그 청년은 보고 있던 스마트폰을 덮고 귀를 기울였다. 나는 〈최고의 행복〉(두란노)이라는 전도지로 복음을 전했다. 진지하게 듣던 그 청년이 복음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였다. 그 청년이 나에게 “이런 말씀과 기도는 처음이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어 감사하다”고 문자메시지까지 보내 왔다. 젊은이들에게는 공감이가는 접촉점만 있으면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좋은 재료도 있어야 한다. 길을 가다 현수막에 ‘좋은 재료보다 더 좋은 레시피는 없다’는 간장계장 음식점 광고를 봤다. 그렇다. 좋은 재료보다 더 좋은 레시피는 없다. 최고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말씀에 나를 많이 노출시켜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린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얼굴이 전도지다. 환한 미소로 다가가 눈을 맞추고 말을 걸어보자. 관계 맺지 않으려는 그들은 사실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사랑하면 영혼들이 보인다. 오늘도 누군가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자녀의 신앙교육 이렇게 하라!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 신앙 전수와 관계 회복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많다. 그런 부모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이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은 자녀에게 건강한 신앙을 전수해 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회복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과 부모와 자녀의 좋은 관계 형성은 공통점이 있다. 자녀를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과 부모와 자녀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우리나라 초·중·고교생 571명의 하루 일과를 분석했는데 하루 평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13분에 불과했다. 이를 비율로 계산하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고작 0.9%만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평균치가 13분인 것을 고려하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13분보다 훨씬 적은 학생들도 많다는 의미다.

물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반드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리적인 시간 확보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있는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에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실제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경험한 성도들은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이 "자녀와 더 가까워지고, 자녀에게 건강한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칭찬을 멈추지 않았다. 금년 상반기에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을 수료한 권지영 성도(가정사역공동체)는 딸 하임이가 전도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고백했다.

"하임이는 전도하는 걸 유난히 어려워했는데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한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짝꿍을 전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세진 성도(송파공동체)는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서 딸 아연이와 훨씬 가까워졌다.

"딸하고 3년 5개월 정도 떨어져 지냈어요. 아내와 딸이 해외에서 생활했거든요. 늘 딸과 함께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했는데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사이가 상당히 가까워졌어요."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이 왜 필요할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이 왜 필요할까? 이 질문에 그 해답이 들어있다.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 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 주라"(신 6:7).

그동안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완전히 맡겼다. 혹은 자녀들이 주일성수, 봉사하기, 말씀 외우기 등과 같은 외형적인 신앙 습관을 갖도록 돕는 것이 신앙교



양육자와 동반자를 격려하는 'cheer-up day' 프로그램을 받고있는 부모와 어린이.

육의 전부였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려면 적절한 신앙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은 자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도록 돕는다.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친다.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한다. 그래서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시작하기 전에 2주 동안 '자녀를 위한 일대일 양육자반'을 수강해야 한다. 다양한 교육과 강의를 들으면서 부모가 먼저 훌륭한 양육자로 변화한 다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고 결단한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초등학교생 자녀를 둔 아버지로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을 수료한 성도여야 한다. 아버

지를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로 세우는 이유가 있다.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가정 형편과 상황에 따라 조부모, 어머니, 주일학교 교사 등도 양육자가 될 수 있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은 12주 과정이다. 교재는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두란노)를 활용한다. 부모가 각 과에 나오는 핵심 주제와 양육의 목적을 자녀에게 설명하고, 각 과의 주제에 맞는 활동 과제를 제시한다. 주제와 관련된 성경말씀도 암송한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12주 동안 이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어린이양육팀에서는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cheer-up da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cheer-up day는 부모와 자녀가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중단하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사역칼럼



육동건 장로
(어린이양육팀)

자녀들은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며 하나님과 어른들로부터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다. 예수님처럼 말이다(눅 2:52). 성경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힘껏 전파하라고 했는데(딤후 4:2) 어린 자녀에게는 그 때가 있다.

자녀들은 평생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때를 위함(에 4:14)이 바로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이다. 부모가 자녀를 일대일로 양육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10~13세 사이다. 너무 어리거나 사춘기가 되면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대일 동반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아버지들이야말로 자녀를 위한 최고의 양육자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한 양육자가 되는 것은 거룩한 사명이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실천적인 방법이다. 하나님은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진정한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는 기회의 문을 열어 주셨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바쁜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누가 하겠는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려는 부모들을 어린이양육팀(일대일사역팀)에서 돕고 있다. 2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부모양육자 오리엔테이션 '자녀를 위한 일대일양육자반'을 운영하고 있다. 자녀의 신앙전수권, 말씀양육권, 축복권이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

있음을 일깨우고, 아버지들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뚝 서도록 응원하고 있다.

아버지와 자녀는 12주 동안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서 영적 친밀감을 회복하고, 믿음의 계승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된다.

자녀를 위한 일대일 양육자반은 2017년 4월 9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처음 개설됐다. 지금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에서 부모 238명이 어린이 일대일 양육자 과정을 수료했고, 약 33쌍이 어린이 일대일 동반자반을 수료했다. 앞으로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은 가정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퍼져 나갈 것이다.

때마침 차세대사역본부가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돕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다. 차세대사역본부와 일대일사역팀의 협력을 통해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이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 기대한다. 차세대 교육 현장

에서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내년에는 대외사역을 통해 국내 타 교회에도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비전교회와 선교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영문판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교재도 준비하고 있다. 사랑부와 같은 특수영역에서도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교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순간에도 나의 가슴을 고동치게 하는 전진의 북소리가 들려온다. 새벽이슬 같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기를 기도한다. 성령님께서 새로운 기름을 부으실 새 부대를 준비하고 계신다. 신바람(神風)이 불어오니 신바람 난다. 아멘!

전문가 기고

“무엇을 주목하는가?”

내가 아니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혜숙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사람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될 때가 있다. 왜 그럴까? 교실 상황을 떠올려 보자.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고 학생들은 암전히 책상에 앉아 있다. 그런데 철수라는 녀석이 옆에 있는 짝궁에게 장난을 거는 모습이 선생님의 레이더에 포착되었다. 선생님은 철수에게 “철수, 그러지 마”라고 가볍게 경고를 주었다. 철수가 잠시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머지않아 철수는 소음까지 내면서 주위 친구들을 괴롭혀서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을 거슬리게 만들었다. 선생님은 다시 한 번 “철수, 암전히 있어 야지”라고 엄한 표정과 함께 강한 경고를 주었다. 철수는 멈칫하는 듯 했지만 잠시 후 온 교실을 헤집고 다니면서 수업을 방해했다. 선생님은 도무지 통제 불능인 철수 때문에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 수업에서 선생님은 철수를 제지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버렸다.

이 상황은 교실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말썽꾸러기가 하나 있으면 선생님들은 그 녀석을 통제하느라 애쓰게 된다. 하지만 도무지 그 녀석들을 당할 재간이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교실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 선생님은 철수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무력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철수와 선생님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교실에서 선생님과 철수 사이에 일어난 일을 ‘행동주의 심리학’ 입장에서 살펴보고 싶다.

행동주의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자극과 반응의 연결고리로 설명한다. 예를 들면, 행동(behavior) 뒤에 어떠한 후속결과(consequence)가 이어지느냐에 따라 유기체는 그 행동을 지속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명한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킨너(B. F. Skinner)는 실험상자 안에 배고픈 쥐를 넣고 행동을 관찰하였다. 쥐는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도록 만들어진 상자 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우연히 지렛대를 누르고 먹이를 먹게 된다. 처음에는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나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몇 차례 이러한 행동과 후속결과가 반복되면 쥐는 배가 고플 때 마다 먹이

를 먹기 위해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지렛대를 눌렀을 때 전기 쇼크가 주어지면 쥐는 더 이상 지렛대 누르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스킨너의 실험에서 쥐는 자신의 행동 뒤에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 해당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 즉, 자극과 반응의 연합으로 학습이 일어난 것이다.

행동주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 즉 강화가 뒤따르는 행동은 증가하고, 부정적인 결과 즉 처벌이 주어지는 행동은 감소한다. 이런 원리를 ‘조작적 조건형성’이라고 한다. 조작적 조건형성 이론에서는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강화와 처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없애기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주목하기보다는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함으로써 더 많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의 예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자. 교실에서 선생님은 철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경고하는 것이 철수에게 처벌로 작용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그만두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동일한 상황을 철수의 입장에서 보자. 철수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늘 바쁘시다. 성적도 좋은 편이 아니어서 집이나 학교에서 한 번도 관심과 주목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우연히 수업시간에 짝궁에게 말을 걸었는데 선생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아닌가.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다니!’ 철수는 이번엔 옆 짝궁뿐만 아니라 앞뒤에 있는 친구들을 괴롭혀보기로 한다. 그러자 선생님이 내 이름을 더 크게 부르고,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눈을 맞추시는 게 아닌가. 철수는 아예 이리저리 교실을 돌아다녀 보기로 한다. 그러자 수업시간 내내 선생님을 나에게만 집중하도록 만들 수 있었다. 철수는 그동안 받아보지 못한 관심과 주목을 마음껏 받을 수 있었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주목하기보다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기

철수의 떠드는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선생님의 행동은 오히려 철수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유지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한 행동이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것이다. 우리는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선생님의 원하는 바는 철수가 암전히 앉아있는 것이다. 선생님은 바람직하지 않은 철수의 떠드는 행동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철수가 암전히 앉아 집중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찾아내야 한다. 제아무리 장난꾸러기 녀석이라 할지라도 한 시간 내내 떠들고 있지는 않는다. 어느 순간 암전하게 앉아있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다. 선생님은 그때를 포

바다에 빠질 것인지
물 위를 걸어갈 것인지

빛과 어두움의 원리이다. 어두움을 없애려고 어두움을 분석하려 한다면 어두움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어두움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잠시 상상해 보자.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그렇다. 우리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스위치를 올려서 전등을 밝힌다. 이처럼 어두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빛을 비추는 것이다.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나게 되어 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엡 5:8).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베드로가 무서운 바람과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봤을 때 바다에 빠졌지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 우리가 바다에 빠질 것인지 물 위를 걸어갈 것인지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마 14:28-31).

상담실에서 만나는 많은 내담자들은 수많은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정죄감이 내재해 있다. 내담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도 수치심과 정죄감으로 힘들어한다. 우리를 괴롭히는 부정적 감정은 왜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목했기 때문이다. 자아몰두의 결과는 비참함이다. 자신을 주목할 때 우리는 수치심과 정죄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이다. 정죄감과 수치심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향해 있는 눈을 들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히 12:2).

“모세가 놋뿔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뿔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민 21:9).

장대에 달린 놋뿔을 쳐다본 이들은 모두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우리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다. ‘나의 어퍼함’은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퍼함’이 나의 어퍼함’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 2:20).

착해서 그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철수의 떠드는 행동은 일관되게 무시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일관되게 강화할 때 철수의 문제행동은 저절로 소거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람직한 행동의 비중이 점점 많아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없애기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주목하기보다는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함으로써 더 많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다. 다만 이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철수를 유심히 관찰해야 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주어야만 한다. 바람직한 모습은 쉽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철수에게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사실 교사나 부모들이 야단을 치거나 벌을 주는 방법을 택하는 것은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기보다는 그것이 훨씬 쉽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드러나는 문제 행동을 지적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바람직한 행동을 기대하고 그 행동이 나타나는 순간을 포착해서 적절하게 칭찬해주기란 쉽지 않다. 매우 많은 인내와 관심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의미, 영광, 영원을 갈망한다면 예수를 믿어라!”

‘후쿠오카(福岡)’에 울려 퍼진 복(福)된 메시지 일본인 1,577명 참가 43명 결신, 긍정적 반응 142명

축복의 언덕 후쿠오카(福岡)에 복(福)된 메시지가 울려 퍼졌다. 지난 13~14일 아크로스 후쿠오카 심포니홀에서 28번째 러브소나타가 막 올랐다. 일본인 1,577명이 참석했고, 185명(43명 결신, 142명 긍정적 반응)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러브소나타 후쿠오카는 13일 교회세미나, 가스펠나이트, 14일 CEO포럼과 러브소나타 집회로 꾸며졌다. 하카타그리스도교회에서 열린 교회세미나에서는 박종길 목사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정진호 장로 ‘세상을 이기

는 크리스천’, 이기복 교수 ‘가정사역과 크리스천’을 주제로 강의했다. 같은 날 저녁 아크로스 후쿠오카 심포니홀에서는 가스펠나이트가 개최됐다. 후쿠오카 현지 성도들과 아티스트들이 연합하고 기획한 무대를 선보였다.

14일 니코호텔에서 진행된 CEO포럼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정재계 리더십 163명(한국 78명, 일본 85명)이 한자리에 모여 교제했다. 이 자리에서 아키토모 요시히코 사장(주식회사 빵 아키토모)은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위해 유효기간이 길고 운반이 용이한 ‘빵통조

림’을 개발했다”면서 “구멍가게도 세상과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한일리더십들에게 심어주었다.

14일 저녁에는 대망의 러브소나타 후쿠오카 집회가 막 올랐다. 고세원(기독교무용), 이슬기(가야금 연주자), 송솔나무(플루트 연주자), 김영미(소프라노), 안토니오 코가(기타리스트)가 게스트로 출연해서 수준 높은 볼거리를 선사했다.

메시지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전했다. 이 목사는 “인간이 의미, 영광, 영원을 갈망하는 이유는 그런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라며 “우리에게 죽음 너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를 믿고 축복(福)의 언덕(岡)에 오르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우에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집

회에 온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찬다”고 말했다. 친구 초대로 집회에 온 한 일본인은 “한국 봉사자들의 사랑과 목사님의 메시지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인사했다. 최혁철 형제(일본어예배)는 “일본인들의 표정이 점차 밝아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고, 김래원 어린이(11세, 수원 온누리교회)는 “어른들 따라 봉사하는 것도, 일본 사람들을 보는 것도 즐겁고 재밌었다”고 했다.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는 “한국과 일본이 하나 된 것은 사랑의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면서 “러브소나타를 통해 십자가 사랑의 위대함과 감격을 목도했다”고 고백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사미 목사가 말하는 후쿠오카의 10년 후



사미 목사
(하카타그리스도교회, 후쿠오카 실행위원회장)

사미 목사는 온누리교회와 인연이 매우 깊다. 1996년 한국에서 사역했는데 그가 사역하던 교회가 바로 온누리교회다. 1년 6개월 정도 온누리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서 사역했다.

“러브소나타의 은혜와 감동을 직접 경험하고 목도한다면...”

후쿠오카에 온 지 2년밖에 안 된 2014년이 었다. 아마구치현 시모노세키에서 러브소나타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시모노세키에서 러브소나타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협력교회 신

청을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온누리교회가 개최한다고 해서 더욱 신뢰와 애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언젠가 후쿠오카에서도 러브소나타가 개최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게 됐다. 그리고 2년 뒤 정말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김경훈 목사(러브소나타 본부장)와 러브소나타 후쿠오카 집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다.

“제가 그때 ‘아무거나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저한테 실행위원장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시 제가 후쿠오카에서 사역한 지 5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선배 목사님들에 비해 젊었기 때문에 주저했어요. 제가 후쿠오카 교회들을 연결시키고, 하나로 연합시키는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했습니다.”

문제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몇몇 성도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

아시아를 넘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알고 봤더니 저의 목회에 불만이 있던 분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냐’며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외부 사역도 좋지만 교회 안에도 할 일이 많고 도움 줘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서 굳이 외부로 눈을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미 목사는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솔직히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러브소나타에 직접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봐야 알 것 같더라고요. 러브소나타의 은혜와 감동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목도한다면 반드시 그들도 변화될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후쿠오카 지역 목사님들에게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사미 목사는 온누리교회와 일본 교회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사미 목사는 러브소나타를 통해 두 가지 소

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청년 부흥이었다.

사미 목사의 꿈은 실현 불가능한 게 아니다. 이미 10년 전 러브소나타 후쿠오카를 통해 후쿠오카 교계가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2018년 러브소나타를 준비하면서 이 네트워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지난 10년 동안 후쿠오카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고, 리더십 세대교체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러브소나타 후쿠오카를 준비하면서 쌓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긴밀하게 동역하는 후쿠오카 교계를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미 목사가 후쿠오카 교계의 꿈과 비전을 소개했다.

“후쿠오카는 아시아의 현관입니다. 앞으로 후쿠오카 교계가 지리적 장점을 살려서 아시아와 긴밀히 협력하고, 세계복음화를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후쿠오카(福岡)가 왜 축복(福)의 언덕(岡)일까?

규슈의 경제·문화 중심 도시, 고대 동아시아 외교 집결지 지리적·문화적 자원 활용해서 전 세계 부흥 위한 거점으로

이보다 복(福)된 곳이 또 있을까. 규슈(일본 4대 섬 중 하나. 북쪽부터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중심 도시 후쿠오카(福岡)를 둘러본 감상이다. 후쿠오카는 '아시아의 관문'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로부터 일본 국제교류의 거점이었다. 1,4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고대 동아시아 외교 집결지였다. 후쿠오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장악하게 만들어준 지략가 '구로다 요시타카'(크리스천 다이묘)가 만든 도시이다. 또한 후쿠오카는 윤동주 시인이 생을 마감한 곳이기도 하다. 유구하고, 역사적이며, 한국과 일본의 슬픈 역사의 애환이 공존하는 후쿠오카를 둘러봤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후쿠오카 성터 외곽 망루 '시오미야구라', 고로칸 역사박물관, 후쿠오카 구치소(왼쪽부터 시계방향).



인천공항을 출발한 지 딱 한 시간 십분 만에 후쿠오카에 도착했다. 후쿠오카는 한국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일본의 도시다. 공항에서 벗어나 지하철을 탔다. 하카타역(후쿠오카의 옛 지명, 후쿠오카시의 가장 변화가)까지 지하철로 두 정거장, 자동차로는 20분 남짓밖에 안 걸렸다. 실제로 후쿠오카는 국제공항에서 도심까지 이동 시간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깝다고 한다.

먹거리는 또 얼마나 다양한지 모른다. 후쿠오카는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하카타라면' 뿐만 아니라 우동과 소바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또한 대한해협을 끼고 있어 수산물 어획량이 상당하다. 화이트데이를 탄생시킨 과자점이 있는 곳도 바로 후쿠오카이다. 후쿠오카는 미식가들의 천국이다.

후쿠오카는 마츠리(축제)와 이벤트의 도시이기도 하다. 거의 매월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릴 정도로 활기찬 곳이다. 왜 후쿠오카를 규슈의 경제·문화 중심 도시라고 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구로다 요시타카를 만나

하카타역에서 지하철로 다섯 정거장 떨어진 곳에 '오호리공원'이 있다. 그곳에 있는 '고로칸 역사박물관'이 볼만하다.

후쿠오카는 옛부터 일본의 외교, 무역, 문화 교류의 중심 거점이었다. 그리고 헤이안 시대(794~1185년)부터 고대 동아시아 국제교류의 거점 도시로 활용됐다. 이를 증명하는 근거가 바로 고로칸 역사박물관이다. 고로칸은 외국

외교관이나 귀빈들이 묵는 영빈관(게스트하우스)이다. 교토, 오사카, 후쿠오카에 설치됐었는데 유일하게 그 장소가 확인된 곳이 후쿠오카 고로칸이다. 문헌상으로 688년에 처음 등장했다고 하니 무려 1,400년 역사를 자랑한다. 중국 당나라와 송나라, 신라에서 사절단을 파견하거나 국제 무역상과 교역물품들이 후쿠오카로 집결했다.

고로칸 역사박물관은 광활한 터 위에 몽골의 게르(몽골의 전통 가옥)처럼 덩그러니 세워져 있다. 고로칸 역사박물관에는 신라 토기류도 전시되어 있었다. 1,400년 전 신라인들이 문물과 교역품을 가지고 후쿠오카를 거쳐 시모노세키, 오사카, 교토를 다녔을 모습이 그려졌다.

후쿠오카의 랜드마크 '후쿠오카 성터'도 꽤 근사하다. 후쿠오카 성은 후쿠오카 초대 번주 '구로다 나가마사'가 1601년부터 7년 동안 축성한 성이다. 나가마사의 아버지이자 지금의 후쿠오카와 하카타 지명과 구획을 정립한 '구로다 요시타카'(구로다 칸베, 구로다 조스이)가 기독교인이었다.

요시타카는 오사카의 크리스천 다이묘(영주)였던 다카야마 우콘의 전도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았다(세례명 시몬). 요시타카는 일본인이려면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략참모가 그였기 때문이다. 요시타카는 도요토미가 천하통일을 이룩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한 지략가였다. 요시타카는 말년에 후쿠오카 성터 외곽 망루 쪽에 은거하고 '조스이'(如水)라는 호를 썼는데 이는 여호수아의 영어명인 '조슈아'

를 일본식 한자로 쓴 말이다.

'오다 노부나가-도요토미 히데요시-도쿠가와 이에야스'로 이어지는 혼란했던 전국시대에 재산과 지위, 가문을 잃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요시타카의 책략이 그만큼 뛰어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회주의적인 면모가 아쉽게도 신앙에서 드러났다. 1587년 도요토미가 바테렌(선교사를 뜻하는 포르투갈어) 추방령을 발표했다. 다카야마 우콘은 이에 반항하다 추방되었지만, 구로다 요시타카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 그의 이중적인 행동에 선교사와 크리스천 다이묘들이 받았을 충격은 말할 것도 없다.

요시타카가 말년에 은거했다는 장소에 가보았다. 비석만 외로이 서 있었다. 측실도 두지 않고 검약하게 살아 존경을 받았지만 기독교 박해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리어 동료들을 박해한 그의 이중적인 면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리고 돌아보았다.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고난이 닥쳤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앞으로 10년 후 후쿠오카

후쿠오카 성터(지하철 오호리공원역)에서 지하철로 세 정거장을 더 가면 후지사키역이 나온다. 이곳은 한국인이려면 꼭 방문하기를 권한다. 한적한 주택가 사이로 보이는 이질적인 건물이 눈에 띈다. 이곳은 현재 후쿠오카 구치소인데 윤동주 시인이 숨진 후쿠오카 형무소가 있던 자리다. 원래 후쿠오카 형무소는 후지사키역부터 시작해서 사방으로 3만 6천

평이나 될 정도로 규모가 엄청났다고 한다. 지금은 5층 건물 한 동과 빙 두른 철조망이 다였다. 사진을 찍으려니 철조망 안쪽의 교도관의 눈빛이 왠지 삼엄했다. 결국 모퉁이를 돌아 골목길자락에서 사진을 찍었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괜히 서러워졌고 무서웠다. 내가 이런데 윤동주 시인은 얼마나 억울하고 무서웠을까?

잠시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며 묵념했다. 이번에는 러브소나타가 열린 아크로스후쿠오카 심포니홀에 도착했다. 러브소나타 집회가 시작하려면 몇 시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활기찼다. 300명이 넘는 한국과 일본인 봉사자들이 환한 미소와 밝은 목소리로 행사장을 찾은 이들을 환영하고 있었다.

드디어 28번째 러브소나타가 막 올랐다. 이번 집회의 정점은 이재훈 담임목사의 메시지였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언덕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상 그 축복의 언덕에 올라가십시오!"

애타게 부르짖는 그 목소리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 185명(영접 43명, 긍정적 반응 142명)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러브소나타 집회는 끝났다. 이제 후쿠오카는 재도약을 준비할 것이다. 후쿠오카의 지리적·문화적 자원 활용해서 전 세계 부흥 위한 거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10년 후 후쿠오카를 통해서 일본과 동아시아, 세계가 부흥할 것이 기대된다. 그 길에 한국과 온누리 교회가 함께 할 것이다.



지난 9일 양재 사랑홀에서 열린 제2회 양재 권사성가대 정기연주회.

가을밤을 찬양으로 장식하다

양재 권사성가대 제2회 정기연주회

양재 권사성가대가 가을밤을 찬양으로 장식했다. 지난 9일(금)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제2회 양재 권사성가대 정기연주회’가 막 올랐다. 양재 권사성가대의 아름다운 화음이 Blossom Camber(양재 수요일여성예배 챔버)의 연주와 어우러져 환상의 하모니를 완성했다.

이날 양재 권사성가대는 2시간여 동안 ‘거룩한 성’,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하나님의 사랑’ 등의 찬양과 영화 ‘사운드오브뮤직’, ‘모정’의 OST,

가곡 ‘내 맘의 강물’ 등을 불렀다. 특순도 풍성했다. 이교은의 플루트 독주, 김혜영 권사의 기독교 무용 ‘기름 부으심’, 양재 온누리교회 교역자 특순팀이 출연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상준 목사(양재 캠퍼스)는 “권사님들의 노래에서 화음과 더불어 영성이 느껴진다”면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백연숙 권사(분당B공동체)는 “눈 수술을 해서 이번 무대에 설 수 있

을지 걱정했는데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감격했고, 최혜경 권사(부천 주농임성가대 부반주)는 “약과 피로회복제를 먹어가며 열심히 연습해 준 권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양재 권사성가대는 2011년 창단했다. 권사스쿨, 수요일여성예배, 작은 예수 40일새벽기도회 등에서 특순을 섬기고 있다.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10분 양재 두란노홀에서 한다. 문의: 02-570-7469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양재 예수사랑부, 전도초청집회 개최

양재 온누리교회 예수사랑부가 지난 11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를 주제로 전도초청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도초청 집회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양재 온누리교회 예수사랑부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이날 양재 예수사랑부 지체들은 양재 사랑홀 앞에서 울동을 선보였다.

한편 양재 예수사랑부 그림전과 사진전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양재 원형 카페에서 진행됐다.

온누리 아트비전 미술치료 특강

온누리 아트비전이 미술치료 특강을 연다. 12월 3일 오후 2시 서빙고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미술치료 특강은 온누리 아트비전과 CGNTV가 협력하고 있는 ‘지역사회 나눔사업 프로젝트’ 일환이다. 이번 특강은 서빙고동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상이다. 강사는 신수하 관리부장(온누리 아트비전)이다.

문의: 010-8516-7304

CGNTV 드림온 콘서트 개최

CGNTV가 지난 8일 저녁 7시 장충동 그랜드 엠베서더 호텔에서 드림온 콘서트를 개최했다.

드림온 콘서트는 CGNTV가 후원자들의 사랑과 섬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미디어 선교의 비전을 나누는 자리다. 이날 콘서트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이용경 장로(CGNTV 대표), 정상건 장로(운영위원장)를 비롯해 후원자 220여 명이 참석했다. 방송인 표인봉, 윤유선, 가수 이무송, 노사연 부부, 고향교회 패밀리 MC 4인(박요한, 김선정, 이정규, 제이미스톤즈)등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선교지와 한국 교회를 섬기는 CGNTV의 사역에 계속 동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서빙고 새가족 만남의 잔치

날짜: 11월 25일(주일) / 시간: 오후 5시~7시(식사제공)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지하2층 시온홀(B2)
대상자: 9월 6일~11월 8일까지의 새가족 8주 과정 수료자

가정사역	한서윤	동대문중앙	하영민	성북	유영실	온누리미션	정옥주
김성훈	김정애	황민숙	김대중	이한솔	강주희	김진호	S브릿지
관악금천	양영실	동작	서빙고	문기은	여의도	중종로	김진호
강서	오유근	강에은	김남희	박영미	강호정	김영남	민윤식
오평준	조현옥	연창옥	김선화	석희정	영등포구	김영윤	백우람
강촌	광명	전종건	박명순	정연옥	김남규	박규민	윤주희
김정민	마리다	마포	성동광진	조항임	김점옥	엄기찬	이선의
김태훈	장미숙	김정현	김재오	신용산	김주희	윤세진	임정은
고양은평	김포	김진환	노엘리오라	구송희	빙지영	윤정희	장한나
구재형	정정미	성수정	이현정	백정순	이정아	정진숙	
김범수	김영자	윤희자	이형주	양천	조익희	한강	신희정
김영신	노원	이태순	정소연	권효재	서순익	이봉균	
민세원	최종서	조숙자	조정호				
전지원		최정민					

안산M센터, ‘올네이션마켓’ 연다

오늘 정오 안산M센터 주차장

안산M센터가 올네이션마켓(All Nations Market)을 연다. 오늘(18일) 오후 12시 안산M센터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올네이션마켓(All Nations Market)은 이주민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주민들과 교제하

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올네이션마켓(All Nations Market)에서는 각 나라의 음식과 물품을 판매하는 16개 부스가 운영된다. 이주민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도 진행될 예정이다.

영등포구로공동체 맞춤형전도집회 개최

전도대상자 35명 참석, 18명 결신

영등포구로공동체가 맞춤형전도집회를 개최했다. 전도대상자 35명이 참석했고 18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영등포구로공동체 맞춤형전도집회는 지난 10일 오후 4시 경기도 양주시 송추 혜세의 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맞춤형전도집회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열정’을 주제로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됐고, 접속

을 주제로 진행된 2부에서는 배우 장광 장로의 간증, 결신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김성진 집사(영등포구로공동체)는 “이번 맞춤형전도집회는 전도대상자들에게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권한송 기자 kcs123@onnuri.org



수험생을 위한 기도...

2018년 수능능력평가시험일이었던 지난 11월 15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에서 학부모들이 수험생 자녀를 위해 뜨겁게 부르짖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

인도네시아 긴급구호

NGO 더멋진세상이 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긴급구호를 이어가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두 차례 긴급구호 활동을 했다. 1차 긴급구호에서는 팔루 북동쪽 130km 지점 팔라우 마을 247가구에 식료품, 침구류, 생활필수품, 구급약 등을 전달했다. 2차 긴급구호에서는 팔루 남부지역 성구 마을 367가구에 쌀 1톤과 식용유, 설탕, 분유, 기저귀, 비누, 치약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지난 10일에도 쌀 2.67톤과 임시거주 텐트 40개, 생활용품 등을 전달했다. 앞으로 NGO 더멋진세상은 팔루와 성구 지역의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는 사업을 진행 할 예정이다.

해외 봉사단원 모집

NGO 더멋진세상에서 해외 봉사단원을 모집한다. 봉사단원으로 선발되면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프리카 세네갈과 우간다 지역으로 파견된다. 세네갈 본나라 마을에서 농업과 교육 보전 등 더멋진 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우간다에서는 남수단 난민들을 위한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 12월 7일(금)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 www.abetterworld.or.kr)

제1221호 | 2018년 11월 18일(주일)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를 다녀와서



/ 김익권 집사(강서공동체)

성경에 나오는 현장에서

작년 11월 이스라엘로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를 다녀왔다.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올해 9월에도 터키와 그리스로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를 갔다.

나와 아내는 류모세 목사님이 쓰신 <열린다성경>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다. 우리 부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다.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싶은 마음에 류모세 목사님이 진행하는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에 참석했다.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는 매일 아침 1시간씩 성경과 인문학을 공부한 다음 성경에 나오는 장소를 답사하는 아카데미다.

가장 기억에 남는 답사 지역은 이스라엘이었다. 이스라엘 투어는 구약과 예수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성지순례다. 이스라엘 투어에서 유대 광야가 가장 인상 깊었다. 광야에는 정말 풀 한 포기 없이 모래만 가득했다. 그곳에서 엘리야가 머물렀던 로렘나무를 봤다. 나는 로렘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보니 잎이 듬성듬성 했다. 성경에 나오는 장면을 현지에서 직접 보니 훨씬 감동적이었다. 그곳에서 기도했던 엘리야를 상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올해 9월에 참석한 그리스와 터키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에서도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그리스와 터키의 분위기가 너무 달랐다. 터키는 다소 경직된 분위기였는데 그리스는 밝고 경쾌했다. 그리스는 신화의 나라다. 수많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할 수 있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을 뿐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로마가 만든 도로를 걸었다. 로마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 만든 도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깨달았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복음전파를 준비하셨다. 성경공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는 다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재밌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2019년 7월 20일~26일

터키-그리스-산토리니: 2019년 7월 26일~8월 4일. 문의: 010-4902-1022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 간증



/ 서수민 자매(SNS공동체)

“주 앞에서 거룩한 척 하지 말라”

너무 힘든 지난날 그냥 무엇이랄도 붙잡고 자 학교 옆에 있던 작은 교회의 새벽기도에 나갔다. 아마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셨던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그 교회에 잠복해있던 이단 종교 성도와 친해지는 바람에 지난해 그곳에 들어갈 뻔 한 일이 있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내가 그 사람에게 배운 내용이 이단의 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뒤로 그 사람과 연락을 끊었다. 그 이단 종교가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 친한 언니를 따라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난 청년부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저장해뒀던 것이 기억났다. 그 목사님께 전화를 했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온누리교회를 소개받았다.

온누리교회는 제자양육 과정이 잘 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끌렸다. 한 달을 고민한 끝에 올해 2월 온누리교회에 등록했다. 지금은 SNS공동체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싶었고, 성경말씀을 공부하고 싶었다. 그 갑갑함 때문에 이단 종교인의 말에 휘둘렸던 게 아닌가 싶다. 온누리교회의 예배와 다양한 성경공부 과정에

참여하면서 그 갑갑함을 채울 수 있었다. 일대일 제자양육도 신청하게 되었다. 김현주 집사님과 일대일 제자양육을 했다. 김 집사님과 일대일 제자양육을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 집사님은 매주 나의 현실과 신앙 사이의 접점을 찾아주셨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주셨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주 앞에서 거룩한 척 하지 말라”였다. 사실 나에게 주님은 너무 어려운 존재였다. 주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주님과 교제를 하는 순간에도 어려운 마음을 짊어지고 있었다. 주님께 순전한 것을 드려야 하는데 나는 언제나 경건함으로 포장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있었다. 김 집사님께 양육 받은 이후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 오직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다. 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주님 안에서 나의 신앙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꺼져가는 나의 신앙의 불씨를 살리는 계기가 되었다. 나의 간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와이미션 수료 간증



/ 김세자 성도(성북공동체)

좁고 힘든 길일지라도

한 주에 하루는 신앙교육을 받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세상에 눈을 돌리고,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그 계획과 어긋나는 길을 가게 됐다. 그러던 중에 와이미션을 알게 됐다. 내가 원했던 강의는 부담이 적은 성경 공부였지만 시간적으로 내가 들을 수 있는 교육은 와이미션 밖에 없었다.

나는 ‘선교’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매우 큰 부담을 느꼈다. ‘과연 내가 이 교육을 잘 들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선교는 특정 소수의 사람만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교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삶으로 시작하는 선교가 되어야 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살기보다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누리는 복을 왜 나는 받지 못하는지 불평했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교에 대한 거룩한 사명감을 갖게 됐다.

모든 선교는 고난과 함께 이루어진다. 생명이 있는 거룩한 씨앗이 죽어서 또 다른 많은 생명을 잉태한다. 와이미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선교에 헌신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와이미션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금 뜨겁게 부르게 된 찬양이 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찬양을 부르며 비록 좁고 힘든 길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기로 다짐해 본다.

프리덤스쿨 스태프 간증



/ 최지혜 자매(프리덤스쿨)

진리와 생각을 붙잡는 훈련

나는 나 자신을 사랑받기 충분하지 못한 존재로 여겼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악한 모습도 이해하려 노력했다. 사람들의 요구를 무작정 받아주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과 감정을 계속 억제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나를 비난하고 정죄했다. 그렇게 불안정한 방법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했다.

내적인 고통으로 20대 초반 섬유근육통을 앓게 됐다. 섬유근육통은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는 불치병이다. 숨 쉬기조차 힘들 만큼 고통스러웠다. 이 고통은 14년 동안 지속됐다.

프리덤스쿨에 참여하면서 이 병이 죄책감과 세상을 악하고 허무하게 바라보는 나의 사고방식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프리덤스쿨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들과 마주하게 됐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수치와 정죄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 놓았다. 그러자 몸의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견고한 생각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프리덤스쿨 스태프로 섬긴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통증이 거저된 생각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며, 이 통증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으로 절망했던 나에게 큰 희망이 됐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주님의 진리를 선택하고 받아들입니다”라고 선포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몸을 낮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런데 하룻밤 만에 나았던 통증이 시간이 지나자 다시 나타났다. 30년 넘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하룻밤 만에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있던 모든 생각이 거저이었다는 것을 안다. 계속해서 프리덤스쿨을 섬기면서 내가 품고 있던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생각을 붙잡는 훈련을 하고 있다. 나는 앞으로도 이 훈련을 기쁨으로 받을 것이다.

신앙에세이

하나의 선교



김성웅 목사
(온누리M미션)

선교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인물은 바울이다. 사도, 목회자, 전도자, 선교사로서 그의 삶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가득했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게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하나가 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격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다. 하

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그의 세계관이 바뀌었을 뿐이다. 과거 사울은 자신의 세계관대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을 핍박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세계관이 바뀐 후에는 똑같은 열정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는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세계관을 갖게 된 것이다.

나 또한 군대에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이후 나의 20대의 삶을 선교로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다. 전역 후에 선교단체에 들어간 뒤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아웃리치와 선교훈련을 통해 해외선교로 이끄셨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잠시 학업을 내려놓고 중국으로 갔다. 2년여 동안 중국인을 위한 학교를 섬기고, 세우고,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을 섬기는 일을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답게 여기는지를 알게 하셨다. 또한 나를 향한 부르심이 선교적 목회임을 깨닫게 하셨다.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직장생활을 하며 빚을 갚고,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 햇볼트리니티대학원에 들어갔다. 결혼도 하나님께서는 선교에 마음이 열려있는 자매를 만나게 해 주셨다.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대학원을 열심히 다녔다. 그리고 졸업 후 우리 가정은 선교지로 다시 가기 위해 3개월 동안 밤마다 기도했다. 마침 중국에서 함께 사역했던 팀과 다시 연락이 되었고 그 팀이 태국 현지

팀과 연합이 되어서 사역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 가정도 그 팀과 협력하는 것이 주님의 뜻으로 믿고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태국으로 갔다. 그런데 태국에 있는 동안 동역하기로 했던 현지팀과 연합이 깨졌고, 우리 가정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돌아온 뒤 기도 가운데 바울은 세계관이 변했지만 다듬어지지 않는 성품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사역이 분리된 사건을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가정 또한 바울과 같이 우리의 연합함으로 선교가 막혔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선교 훈련을 받기로 결정했다.

나는 한국에 돌아와서 선배 목회자들과 중보자들을 만나면서 기도를 부탁했다. 그러던 중에 한 권사님께서 온누리교회 선교사 훈련을 추천해주셨다. 선교훈련 받을 것을 결심하고 2000선교본부를 방문했고, 나는 그곳에서 김홍주 목사님을 만났다. 김 목사님께서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가 부족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으로 이끄시는 것 같으면서 이주민 사역을 소개해 주셨다. 그리고 그 사역에 지원해보길 권하셨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기도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꼈고 온누리M미션에 지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온누리M미션에는 내가 아웃리치를 갔던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형제자매들이 있었고 내가 사랑했던 중국인 아이들과 다민족 차세대들도 있었다. 이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삶의 방향이 예수로 인해 변화되었듯이, 해외선교만이 유일한 선교라고 생각했던 나의 시각을 이주민 선교까지 확장시켜 주셨다. 이주민들을 섬기고 목회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들과 같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꿈을 주셨다. 이주민 선교와 해외선교는 분리된 것이 아니었다. 이주민 선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선교’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권사칼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이희원 권사
(양재 권사성가대)

2011년 양재 권사성가대가 만들어졌다. 권사님 한 분, 한 분이 양재 권사성가대에 함께 해주셨다. 지휘자는 창단 때부터 지금까지 김영식 권사님이 맡아주고 계신다.

나는 찬양에 대한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 않고 무대에 서본 경험도 없지만 내 안에는 찬양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다. 그리고 젊었을 때 잠깐 활동했던 성가대 사역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는 양재 권사성가대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맘껏 부를 수 있어서 감사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여주셨다. 나는 찬양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볼 수 있었다.

양재 권사성가대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10분 연습을 시작한다. 지휘자로 섬겨주시는 김영식 권사님은 양재 권사성가대 대원들이 회중 앞에서 찬양을 잘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다. 지휘자님은 양재 권사성가대 대원들에게 발성법, 박자를 맞추는 법, 음감을 기르는 법 등을 가르쳐 주신

다. 양재 권사성가대 권사님들은 매주 연습한 곡들을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갈 능력을 얻는다. 그리고 권사성가대 대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한다.

양재 권사성가대는 권사회 개강예배와 매달 첫째 주 수요일성예배에서 특송을 부른다. 양재 권사성가대 대원들은 프로만큼 훌륭한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예배에 대한 열망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크다. 권사님 한 분 한 분이 열정을 가지고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찬양을 듣는 회중들 가운데 큰 은혜를 부여주시길 소망한다.

나는 양재 권사성가대에서 팀장으로 섬기고 있다. 팀장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 있다. 바로 양재 권사성가대에 참여하시는 권사님들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권사님들이 양재 권사성가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알아가길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원들 간의 관계 안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길 바란다. 그래서 양재 권사성가대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축복하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지길 소망한다.

지난 11월 9일 양재 권사성가대가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양재 권사성가대 정기연주회는 2016년부터 시작해서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다. 이번 정기연주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받고 치유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특히 이번 정기연주회에는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오셨다. 양재 권사성가대 정기연주회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양재 권사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장로칼럼



김영환 장로
(OCC공동체)

추상미 감독의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봤다. 그 영화를 보는 내내 10여 년 전 우리 회사에 근무했던 한쪽 미애씨(가명)에 대한 추억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미애 씨는 한국 남자와 결혼했었다. 그런데 남편에게 매 맞고 이혼까지 당한 후에 식품제조회사인 우리 회사에 입사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이었다. 공장장이 내게 미애 씨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미애 씨가 안면홍조증을 앓고 있다고 했다. 안면홍조증은 추운 지방에 살던 사람이 따뜻한 나라에

오면서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얼굴에 홍조가 생기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질환인데 처방할 수 있는 약이 딱히 없다고 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미애 씨와 이야기를 나눴다. 미애 씨는 매우 추운 흑룡강성에서 살았다고 했다. 흑룡강성보다 따뜻한 한국에 오니 몸이 이상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가슴이 불붙는 것처럼 뜨거워 견디기 힘들다며 눈물을 흘렸다. 도움을 줄 수 없는 내 마음도 매우 답답했다. 회사로 돌아와서 직원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을 모았다. 회사 예배실 한 가운데 미애 씨를 앉히고 십여 명이 둘러앉았다.

“여러분, 병원에서 미애 씨를 치료하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믿는 우리가 기도로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나와 직원들은 함께 찬양을 부르고 미애 씨에게 안수하고 기도했다. 모든 직원들이 대성통곡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다. 기도회가

끝나고 미애 씨의 빨간 얼굴이 나을 줄 알고 쳐다봤는데 변화가 없었다.

주말이 되자 미애 씨는 이태원에 있는 친한 언니의 직장으로 자신을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이태원역 앞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다. 월요일 아침 약속한 대로 이태원역에 차를 세우고 미애 씨를 기다리며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다. 잠시 뒤 누군가 자동차 창문을 두드리기에 눈을 뜨며 창문을 내렸더니 미애 씨가 자신의 뺨을 톡톡 치면서 놀라운 말을 했다.

“사장님 내 얼굴이 깨끗해졌어요.”

미애 씨의 얼굴에 있던 홍조가 사라졌다. 가슴 통증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그날 이후 미애 씨는 우리 회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정환 목사님(분당B공동체)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미애 씨가 불심검문에 걸려 강제 출국되었다. 며칠 후 중국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미애 씨였다. 미애 씨는 내게 “사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다행히 중국에서 잘 지내는 것 같았다. 그 사건 이후 우리 회사에서는 수십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한국인 전쟁고아들을 2년 동안 돌봤던 폴란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강도 만난 이웃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듯이 지금도 그 아이들의 안부를 궁금해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오늘도 주께서는 내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고 물으신다. 전쟁고아들이 폴란드에서 만난 선생님들이 착한 사마리아인이었다. 우리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어야 한다.

착한 사마리아인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몸이 더 부패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더 부패했을까요? 부패한 성향이 어디에 더 많을까요? 우리의 육신에도 부패한 성향이 있지만 욕구 이면에 있는 영혼의 옛 본성이 더 무섭습니다.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롬 8:3).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롬 8:7).

여러분,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동정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합리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약함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져도 이를 수 없고,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 영혼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 그분의 은혜, 그분의 공로, 그분의 사역을 의지하지 않는 기도는 스스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정신적 활동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기도에는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 임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속죄하심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이것을 거부하는 약함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그 협력자가 있습니다. 옛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사람의 성향이 남아서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를 무력화하고, 성령의 임재를 거부하는 육신을 죽이고 영혼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은 간절하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간절하다’에서 마음은 헬라어로 ‘프뉴마’입니다. 영입니다. 영이 간절하다는 말씀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도 마음 깊은 곳에 기도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습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기도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악한 육신이 영혼의 소욕을 막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악한 육신을 동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악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영의 소원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깨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북아메리카 인디언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27살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선교사로 활동한 기간 3년 정도였는데 그분이 남긴 기도, 일기, 사역이 큰 은혜가 됩니다.

그분이 말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에서 내려 길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집에 거의 다 왔으면 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되지 굳이 길에서 기도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 속에는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로서 성경 66권을 주석한 몇 안 되는 분입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박윤선 목사님과 함께 살았던 목사님이 함께 동물원에 갔다고 합니다. 오래 전이니까 동물원 시설이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없어졌습니다. 어디 가셨는지 찾아다녔는데 한쪽 벤치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기뻐했었나 하는 마음이 들어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육신 안에 속한 악함, 세상에 속한 어떤 즐거움보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강한 영적 소원이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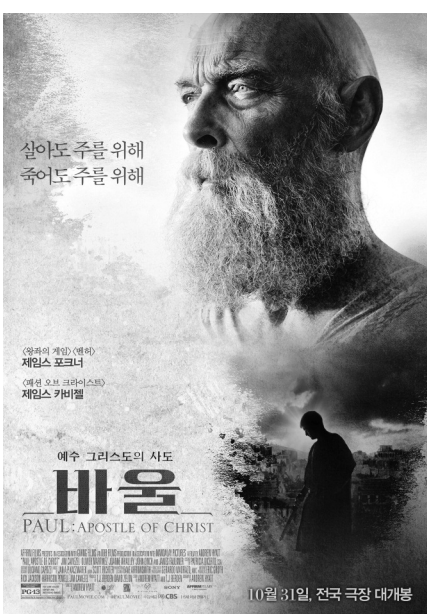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신, 하나님께 불순종, 유혹에 넘어가는 일의 결론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영의 소원을 무시하고, 연약한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면 시험당할 때 반드시 실패합니다. 기도에 승리하면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면 위기가 닥치면 꺾꽂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옛 본성에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은 옛 본성을 이용해서 온갖 핑계거리를 만들어 냅니다. 시간 있을 때 기도하겠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온갖 핑계거리를 만들어 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정신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본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싫어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만나더라도 간단히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 시간을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어떤 육신의 방해에도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십시오. 영적 싸움의 판세를 결정하는 요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의 영이 육신의 악함을 깨고 일어나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회제의 영화 ‘바울’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 중에서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이들이 많

은 것 같아 안타깝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과정과 그 과정에 헌신한 사람들의 수고를 안다면 복음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

지난달 31일 개봉한 영화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한 평생을 바친 사도 바울의 마지막 행적을 그리고 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영화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행적

영화 바울에서는 로마로부터 핍박받던 초대교회와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고 실감나게 보여준다. 이 영화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천국 간 시기라고 추정되는 AD 67년이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제’의 범인으로

복음의 가치

로 크리스천들과 사도 바울을 지목한다. 사도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혀 사형집행을 기다리게 된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당시 로마의 크리스천들도 로마군에게 잡히면 벽에 묶여 즉시 화형에 처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누가가 감옥에 잠입한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키면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절망에 빠진 로마의 크리스천들과 나눈다.

영화 ‘바울’은 개봉 12일 만에 누적 관객 11만 명을 돌파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통계에 따르면 개봉 첫날 다양성 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높은 관람률을 보유하고 있는 상업 영화와 비교했을 때 상영관과 상영 횟수 등이 적어 불리한 조건이지만 수많은 관객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화 바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사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 이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말씀을 보다 실제적이고 입체적으로 접할 수 있다. 영화의 배경 화면은 사도 바울이 실제 머물렀던 몰타섬이다. 당시 중동지방의 풍경과 초대교회가 있었던 로마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

영화 바울은 15세 관람가다. 감독은 앤드류 하얏트이다. 영화 ‘왕좌의 게임’과 ‘벤허’에 출연했던 제임스 폴크너(바울 역)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 역을 맡았던 제임스 카비젤(누가 역)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밖에 에도 올리비에 마르티네즈(모리셔스 갈라스 역), 존 린치(아퀼라 역), 조앤 웨일리(프리실라 역), 안토니아 캠벨(아이레니카 역), 요르고스 카라미호스(사울 역), 마누엘 코우치(야나니아 역) 등이 명품 연기를 선보인다. 배급사는 CBS다.

티켓 가격은 성인 7,500원, 학생 6,500원이다. 전국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다.

문의: 070-4191-0050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분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루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화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를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로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함)

동산위치: (제)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가): 80기

문의: 02-3215-3176

서빙고 한식당, 양지 비전빌리지 식

당 정직원 모집

모집: 한식당 배식, 주방정리, 조리사 보조

자격: 경력부관(단체급식 및 동종업계 경

력자 우대)

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신앙간

증문 1부(선택사항)

접수: ohddong5@onnuri.org

문의: 02-3215-3101

온누리입양가족(제이홀) 입양세미나

일시: 12월 2일(주일) 오후 5시~7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꿈이홀

대상: 입양을 준비 또는 관심 있는 분

문의: 김병찬 총무(010-3836-2717)

두란노 서빙고, 양재 서점 직원 모집

자격: 93년 이전 출생 형태 0명

문의: 서빙고(02-796-2310)

양재(02-573-4704)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중증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심방전도 요청 받음

양재 살림기도회 일정 안내

대상: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

도하기 원하는 성도

KNOCK 단편미니시트콤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시도,
KNOCK 단편미니시트콤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미니콤
crew soo
구리,수

고수, 지수, 영수, 광수,
네 명의 '수'가 벌이는 교회 전도 프로젝트

11월 18일 오늘 KNOCK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공개됩니다.



이들 승호를 전도하기 위해
엄마 미숙이 선택한 기상천외한 방법

11월 25일(주일) coming Soon!

마미웨이
mommy way

*KNOCK 단편미니시트콤은 KNOCK 페이스북 페이지와 SOON 페이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